크레이그 키너 박사 , 로마서, 강의 10,
로마서 8:23-9:16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8:23-9:16의 세션 10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꽤 내성적입니다. 나, 나, 나의, 나의 것. 패배의 장.

육체의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른 어떤 장보다 성령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이 장은 정복자 이상의 장이며, 육신에 있는 자보다 성령에 있는 자의 압도적인 승리의 장입니다.

즉, 단순히 자기 자신에만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맥락에서 탄식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션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출애굽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새로운 출애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지점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전 학부 시절 제 멘토인 베니 애커(Benny Aker)에게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환상, 복합적인 환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은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 말했습니다.

호세아 2장에는 내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광야로 유인하여 너와 약혼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와 내 아들을 불러 엎드려 사랑으로 먹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다시 보내리니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니라 앗수르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상한 사랑으로 깨져 이르시되, 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네게 이 일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가 파괴한 평지의 성읍들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내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엎었고 내가 그 위에 불을 지폈느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고 내 모든 동정심도 나와 함께 뒤집혔느니라.

나의 모든 동정심이 불타올라 내가 부를 것이요, 나의 아들들은 서쪽에서 떨면서 올 것이다. 그들은 앗수르 땅에서 새처럼, 이집트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땅으로 데려오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는 대로가 있고,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게 될 내용을 알리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광야에 대로를 예비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명령 커뮤니티는 이를 자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은 초기 유대교에서도 계속해서 기대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의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8장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서는 그 충만함 곧 우리 몸의 구속, 곧 우리의 기업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고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8:17입니다. 속박으로 인해 신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로 인해 탄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합니다.

글쎄요, 여기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박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같은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몸이 여전히 이 세상 부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식물상 의미의 부패는 그리스 자료에서 엔트로피와 같은 의미로 가끔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가라앉고 시체가 분해되는 등의 일이죠.

우리는 썩어질 것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썩지 아니할 때까지 탄식하며, 바울의 다른 곳에서 언어를 빌려 우리 몸의 구속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출애굽기의 언어인 로마서 8.23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경험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저스틴과 같은 많은 초대 교부들, 특히 그가 트리보, 많은 교부들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많은 교부들인 슈도 바나바와 대화할 때, 많은 교부들은 초림과 초림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재림.

그들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왔기 때문에 바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동안 중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것은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이미, 아직은 아닙니다.

8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아파르트헤이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성령의 계약금에 관해 말할 때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열매는 단지 미래의 수확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수의 실제 시작, 즉 주님께 드리는 추수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미래 세계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극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므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천국이나 미래 세계가 어떨지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젠가는 죽은 자들이 모두 함께, 적어도 모든 의인들이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서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론적인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에 침입한 것, 즉 조지 래드(George Ladd)에게서 빌리고 고든 피(Gordon Fee)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개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첫 열매는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이 로마서 다른 곳에는 문자 그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히브리서 6장에는 우리가 성령을 맛보고 또한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미리 맛보는 영에 관하여 우리는 이것, 아하본 , 계약금,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한 고린도전서 2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글쎄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께 대해 말하는 8장 27절에서 이러한 미리 맛봄에 대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마음과 정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러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실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3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내 말은, 기도 지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집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도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제목을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최고의 기도 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며,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영이 그들 안에 계시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딘가에 나가서 완전히 고립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바울은 협박을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보통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작은 팀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당신 안에 계시며 중보를 하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8장 28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단순한 텍스트 변형이 아닙니다. 아마도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본문의 변형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뜻했으나 하나님은 선을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애굽 백성과 가나안 족속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역사 후반부에 심판이 올 때 출애굽과 정복에서 출애굽기의 재앙으로 후퇴된 번영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의 후손은 사실은 그보다 먼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비극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1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상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종종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과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깨어짐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생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그분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삶에서 궁극적인 선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29절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영광을 받게 되도록 예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이미지와 일치했다. 나는 이것이 고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같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라면 그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요 또한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의 부활에서.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여기에는 5장에서 했던 것처럼 수사학적 용어로 여학생 클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느니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분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완료된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 몸의 영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사가 다시 작동하는 방식은 전체 동작을 외부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만 큼 좋다는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미리 아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결정을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대개 그런 논쟁에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친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성경학자인 한 친구와 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입장을 주장했고 그 친구는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성경학자였으며 우리의 견해를 성경에서 찾은 내용과 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이 내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니오, 당신은 내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모든 용어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려면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 모두 이에 동의합니다 . 우리도 동의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토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단지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있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들릴 것입니다. 내가 단지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만 해석한다면 칼빈주의자처럼 들릴 것입니다.

나는 단지 본문을 충실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셔서 전체 큰 그림이 성경 신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세부 사항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 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주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말은, 신은 문자 그대로 6일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은 세상을 만드는 데 문자 그대로 6일이 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30억년, 150억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데 130억년, 150억년이 걸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후자의 견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견해를 취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 수도 있었고, 오리겐은 실제로 부활체는 구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이 완벽한 형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구형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나무와 나무에 있는 잎사귀 등등, 제 말은, 맙소사... 어쨌든 저는 이것에 너무 흥분해서 가끔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본문에 대해서는 신이 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이 아는 것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경험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며, 둘 다 진짜야. 또한 일부 기독교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며 그 차원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특정한 구절을 하고 있으니 제가 이 특정한 구절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구절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구절의 요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계속 한정하고 있지만 예정은 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9장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은 민족을 기준으로 선택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음, Paul은 여기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책임이나 선택에 관한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인식하고 전체 신학을 만들 때 모든 구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절에는 정말 능숙하지만 서로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그것은 유월절 절기에 사용된 할랄의 일부인 시편 118편 6절, 즉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반영합니다.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의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여기서 시편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 전체를 반향할 뿐입니다.

바울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 인용문이 많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을 도처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자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32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넘겨준 이삭을 결박하는 아게다라 불리는 일의 반향을 본다. 그것이 실제로 여기에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것은 우리에게 아들을 희생하는 고통과 희생에 대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아, 그거 힘들었을 거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넘겨주셨는데, 이는 4장 25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넘겨주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이라는 언어는 예수의 위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애정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omer 라는 암시적인 호출이 있습니다 . 오멜 의 부르심은 얼마나 더 많은 논쟁을 뜻하는 유대 이름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으니 하물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달려가서 백화점에 가서 "알았어, 맙소사, 난 저것, 저것, 저것, 저것, 저것, 저거 원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도 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즉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가 4장과 8장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상속 재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는 8장 33절과 34절에서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글쎄요, 비난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탄을 비난하는 자로 이해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대적 하 사탄(Hasatan) 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한 다음 나가서 욥이 허락하는 대로 무엇이든 욥을 괴롭힙니다. 스가랴 3장에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지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고발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탄은 고발자이고,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는 자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 없도록 쫓겨났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나의 이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나의 이해는 그 아이가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가 열방을 다스리도록 끌려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천국에는 고발자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은 고발자, 유혹자, 속이는 자로서 사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이미 고발자와 유혹자가 있었지만 유대 문헌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랍비들은 실제로 사탄이 속죄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제외한 이유 중 하나는 1년이 36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탄의 이름의 숫자는 364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고발하실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문맥을 통해 선택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느니라 .

누가 나를 판단합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판단합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느니라.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8장 33절과 34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는 이사야 50장에서와 같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건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잃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 때, 우리는 8장과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죄나 죄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요한 1서의 역설처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과 균형을 이루는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고대에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도록 하기도 했지만, 중재자, 옹호자로서 자신을 대신하여 변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 법정에서는 당신을 대신해 말할 사람이 항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상대로 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요한1서의 언어로 아버지 앞에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다 .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십니다 .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제가 배경 주석을 쓸 때 배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주로 성경 외의 배경, 특히 신약에 대한 신약 외의 배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약성경을 스스로 알아라.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완전히 설명하려고 할 때, 배경의 일부, 가장 가까운 배경의 일부는 구약의 신학 외에 초기 기독교 배경, 즉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배경입니다. 추종자들은 믿었다. 그것은 이 편지들이 등장하게 된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작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완전한 맥락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언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행동을 보면, 건너뛸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교차 구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35a절과 39절에서도 그 어떤 것도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는 8:35b와 8:38, 8:39a에 고난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그는 교차점에서는 항상 사실이 아니었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점을 제시합니다.

믿는 자는 철저히 이깁니다. 자, 또는 극복한다는 뜻의 네카오(nekao) 라는 단어가 있고 , 그런 다음 그것은 huper 에 의해 강화됩니다 . 우리가 하이퍼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압도적으로 정복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승리합니다.

8장 35절과 36절에서 이러한 문제 중 일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로마 신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이 겪게 될 고난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근. 바울이 무작위로 이것들을 나열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글라우디오가 황제였던 기간 동안 제국과 제국의 여러 지역에 기근이 닥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때 고린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있고, 갈리오는 병이 나서 약 1년 동안만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Claudius가 돌아다닐 만큼 충분한 곡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로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로마의 관행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대해 매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때때로 이집트의 어린이들이 돌아다닐 만큼 충분한 곡물이 없기 때문에 굶거나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곳으로 배송되는 곡물을 나눠주는 월별 곡물 결투가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먹었습니다. 로마는 실제로 함대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선은 아니고 사업가들이 운영했지만 로마는 확실히 그것을 활용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한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돌아다닐 만큼 음식이 부족할 때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는 약 백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외곽 지역만으로는 이를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양의 곡물을 수송해야 했고 기근은 로마의 영원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이 제국의 안정을 원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황제가 살고 있고 원로원이 있는 제국의 수도 등에서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가 벌거벗음에 대해 말할 때,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벌거벗음을 번역하는 단어는 벌거벗음이 항상 완전히 옷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헐벗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 아내는 18개월 동안 난민생활을 하다가 끝날 무렵 옷이 다 낡아버렸어요.

그녀는 단지 누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집트에서는 보통 사람이 입고 있는 망토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탁하거나 다시 바느질할 때 무엇을 입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기근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은 어떤 특정 시점에든 제국 국민의 절반 또는 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아나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이 굶거나 영양실조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원 시스템, 가족 및 친구 네트워크, 음식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실패했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아주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서 종종 전쟁에 대한 은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로마서 13 장 4 절에서 읽을 수 있는 유스 글라디우스(Jus Gladii)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은 사형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로마는 칼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요원들은 칼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에서 무죄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빗나갔습니다.

그 문맥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있으며 결백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 사회나 세계 전체에 대한 집단적 판단은

단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분 없이 영원히 사는 더 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종종, 아마도, 글쎄, 일반적으로 바울이 신자들에게 말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은 예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병고침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처럼 고난에 관해 말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직면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하기 쉽고 산고를 겪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히 이 검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받는 고난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10년이 채 안 되어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리더는 대개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로마의 황제로서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Nero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이후였습니다.

Nero와 아마도 Tigellinus는 기독교인들이 좋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Nero의 여자친구이자 궁극적으로 아내가 된 Poppaea Sabina는 유대인을 좋아했다고 Josephus는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도 규모가 꽤 컸습니다.

비록 클라우디우스가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지만, 실제로 화재의 원인을 그들을 비난하고 처형을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운동은 비기독교인 유대인들 중 다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보다 쉬운 희생양이 될 만큼 작았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밤에 그의 황실 정원을 밝히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들을 횃불로 사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죽이고, 야생동물로 분장하고 경기장에서 죽게 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구절을 쓴 지 10년이 채 안 되어, 이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면화해야 할 삶과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좋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사실 1980년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미국 교회를 징계하시며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맥에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라이트(Jeremiah Wright)는 미국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했고 그는 좌파에서 말했습니다.

Pat Robertson은 미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했고 그는 오른쪽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용되고 갈가리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관해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비애국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나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에요, 주님?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오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어떻게 거만합니까? 내 말은, 교회는 오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낫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가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정말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는 “날이 가까웠고 밤이 깊었으니 깨어날 시간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입시다. 영원한 관점에서 사물을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나는 이 나라 사람이야, 저 나라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의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계속해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자들이 이미 겪었던 고난도 많았습니다. 나는 아파트 건물과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주택이 매우 열악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열거한 이 모든 일을 포함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로마에서만 할 필요는 없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질 것입니다. 나는 사역에 있어서도 이 사역, 저 사역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알다시피 나는 이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을 끝내야 해요. 한번은 예배에 들어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예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는 것도 좋고, 이것을 하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 심지어 주님을 위해 하는 일로 자신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식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든, 당신이든, 나이든, 우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다른 것들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은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에서 그는 정사와 권세 또는 통치자와 권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통치자와 권위입니다. 그러나 여기 38절에서는 그것은 천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좀 더 논평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때때로 천사의 대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녹 문헌 등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때때로 나라들의 천사들, 곧 땅의 통치자들 뒤에 있는 영적 통치자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70인역 신명기 32장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그리스 왕자와 페르시아 왕자가 미카엘, 하나님 백성의 왕자,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가엘과 맞서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제로 다른 사람과 맞서는 거죠. Michael은 실제로 Gabriel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많은 유대 문헌에서 더욱 발전했고, 나중에 랍비들이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던 에녹의 문헌에서도 다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통치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네로 카이사르가 우리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미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와 과거의 모든 제국은 이제 먼지 속에 묻혀 있습니다.

모든 제국, 인간 제국은 궁극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국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 그의 메시아의 왕국이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관해 말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보다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관찰한 어떤 형태의 영적 전쟁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 대신에 사람들은 이 하늘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캐스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에.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는 온 세상이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회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말은, 다니엘 10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하늘의 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곳이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마침내 이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의 맥락에서 실제로 이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한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성경적 선례가 없습니다. 내 말은, 성경에는 때때로 에스겔이 산이나 다른 곳을 향해 예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영적 전쟁 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특히 사람들이 그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저주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은,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그의 추종자들이 누군가 안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릅니다.

지상층과 같습니다. 공중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천사들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요. 하지만 이 천사들은 땅의 통치자들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무엇도, 삶과 죽음 자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음, 로마서 8장 이후에는 당신의 수학이 나만큼 훌륭하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1장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의 증언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도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영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신자들은 이 새로운 탈출,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민족은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성서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지점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9장과 2절에서 자신의 마음에 계속되는 근심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에는 과장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할 때 마음속에 이러한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백성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멸망당하려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 에서 지워 버리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말되어야 할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를 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모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거나 바울이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 말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모세.

본문에서 그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과 5절. 여기에 바울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3장의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와서,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 4절과 5절에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어미의 반복과 함께 일련의 여성 명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듣는다면 '와, 폴은 정말 멋진 작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는 sia 로 끝나고 , 그 다음은 ah, 그 다음은 I, 그 다음은 sia , 그 다음은 ah, 그 다음은 I입니다. 그는 그들의 것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11:28 에서 그는 그들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율법을 수여하는 나 마타시아(namathasia) 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 영적인 섬김, 제사장적 섬김,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글쎄,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는 입양에 대해 그는 방금 8장 15절과 8장 23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 음,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8:18, 8:21. 영적인 봉사는 나중에 하세요. 12장 1절에서 그는 같은 용어를 다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봉사 곧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봉사니라. 그리고 1장 2절과 4장 16절에 나오는 약속들은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도 그 중 일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5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일반적으로 예수에 대해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의 신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우리는 좀 더 단조로워졌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이전에도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그것은 우리가 정확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신약성서 작가들은 당시에 이해할 수 있었던 예수의 신성에 대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말한 어떤 것들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신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네 자녀 예루살렘을 내 날개 아래 모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고 말씀하신다. 글쎄요, 그것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종류의 묘사이며, 현대 유대 문학과 모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쉐키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아래로 온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신약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계시입니다. 모든 곳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사야의 언어. 이는 Father 에 적용됩니다 . 여기서는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한 곳에서는 그를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복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이 어색하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일반적인 번역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를 이렇게 부르나요? 주님 자체는 신성한 칭호였으며 종종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같을 필요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통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이 그것을 확실히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매우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8장, 6장 등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빌립보서 2장의 쉐마,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하는 이사야서 45장,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 이 단어가 적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글쎄요, 그는 단지 10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 예수의 신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평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송영에서 그를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말했듯 이 ,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의 핵심에 다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믿었으나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삭 안에서 너희 씨라 부르리라.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나요? 나는 사라가 죽은 후 창세기 25장에서 다른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 누가 약속을 받았나요?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이 있었지만 이삭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들이 몇 명 있었나요? 그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요점은 아브라함의 민족적 후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1세대 모두가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 2세대 모두가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 지금은 모두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대부분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반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나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자란 누군가가 "나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조부모님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민족성이나 유산에 근거하여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자란 많은 사람들은 언제 그것을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유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 없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뜻인가요? 글쎄, Paul은 그런 종류의 문제가 이미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제 그리스 철학 종파와 비교하려고 노력하는 요세푸스는 에세네파가 단지 완전히 예정론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섭리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피쿠로스학파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을 에피쿠로스 철학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들을 매우 인기 있는 스토아 학파로 제시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양손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곳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을 실제로 읽어보면 사두개파의 글이 남아 있지 않지만, 사해사본을 실제로 읽어보면 거기에도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정론적이었지만 인간의 선택과 책임도 확실히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종류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교부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유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점성술 등을 통해 그 시대의 철학적 경향에서 떠오르는 결정론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교부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자의적인 결정론보다 자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초기 저서에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후기 저술에서 어거스틴은 인간 완전성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강조에 맞서고 싶었기 때문에 예정론을 훨씬 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맥락과 그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강조점에서 다양한 출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종류의 강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는 예정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야곱의 선택이 무엇인지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8장에 나오는 미리 아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요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Paul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 은 이 9-1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 으며,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든 송영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장과 5절의 송영.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9장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8:23-9:16의 세션 10입니다.